정책동향

산자부, 중소유통업 발전전략 마련

정부는 영세한 국내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는 '21세기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4년간 1조1천89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 △상인정신 혁신 △점포·시장구조 혁신 △수익구조 혁신 △조직혁신 등을 위한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SLI 최장호 대표는 "실태조사 결과, 중소유 통업은 5인 미만 소매업체가 95.9%를 차지하고 1인 평균 근무시간이 12.6시간, 법인화율이 4.14%,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POS) 사용률이 2.9%로 영세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전문상가단지 조성이나 정보화사업, 공동물류·구매사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유통업체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3~4%로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만큼 하루빨리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청, '외국전문인력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의 고급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전 문인력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내년부터 사업지원액을 22억5천만원으로 확충하고 2백70여 명의 외국전문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전문인력지원사업'은 외국기술인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왕복항공료, 6개월 체재비 및 발굴수수료 지원과 신속한 비자발급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적시에 도입해 나갈 계획이이다. 우선 중소제조업 외국인산업연수생 총정원 13만명을 최대한 운용하기 위해 26천명 외에 14천명에 대한 추가도입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중 도입할 방침이며, 중소제조업체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90천명 중 3년 이상 체류자일시출국에 대비해 대체인력 5만여명에 대해 내년 2월중도입절차를 진행한다.

내년도 사업은 12월중에 공고해 내년 1월부터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술동향

3차원 넘어 4차원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입체적인 3차원 공간 정보와 더불어 없어진 도심 시설물의 과거 정보까지 활용, 모르는 길을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 는 4차원 지리정보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간정보기술센터(센터장 이종훈)는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인 '3차원 GIS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환으로 '4차원 지리정보 운영시스템 컴포넌트기 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3차원 공간정보와 현재 없어진 도심시설물의 과거이력 정보 등에 대한 저장·검색·분석기술을 구현해 복잡한 도심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재난관리나 이력관리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3차원 입체 시설물에 대한 자동화 실시간 모델링 기능을 통해 기존 CAD기반 모델링 보다 데이터 구축시 간과 비용이 단축된다.

또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현저히 줄여 관리가 쉽고 처리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국산네트워크업계, 'TCO 절감' 제품에 집중

국산 네트워크장비업체들이 최근 경기불황으로 네트워크 운용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고객을 위해 TCO 절감 효과가 큰 장비영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산 업체들은 외산 업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단순히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향후 운용비용을 줄 일 수 있는 장비개발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L4스위치 전문 업체인 파이오링크(대표 문홍주)는 E1/T1급의 전용선과 ADSL, 케이블 등의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결합해단일 초고속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핑크박스-NLB'로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워크솔루션업체 인프니스(대표 김세곤)는 방화벽, 가상사설망(VPN), QoS 지원기능을 통합한 '솔리게이트 VPNQoS' 영업에 힘을 싣고 있다.

신텔정보통신(대표 김상돈)은 인터넷 트래픽 분산을 통해 $30\sim60\%$ 의 전용선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아이캐시'를 앞세워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산업동향

중소제조업체들 개성공업지구 진출 수요 높다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중소제조업 체의 진출수요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지난 5일 개성공업지구 진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진출 이유로는 중소제조업의 73.6%가 질 좋은 노동력에 비해 노동비용이 낮아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음을 꼽았다.

희망업종은 전기·전자업종(18.2%), 섬유류(16.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11.6%)순으로 나타났으 며, 진출 방식은 직접투자가 44.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31.2%)으로 조사됐다. 진출 형 태는 과반수(53.3%)이상이 독자진출을 바라고 있으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진출도 28.7%나 나타났다.

소요자금 조달방법은 자체자금 조달(36.4%), 중소기업정책자금 이용(29.8%), 남북협력기금 이용(20.3%)순으로 나타났다. 인력충원방식으로는 거의 모든 기업(91.5%)이 기술 인력은 자체투입하고 나머지는 북한 인력으로 충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판매방법은, 과반수(51.4%)이상 기업이 생산제품을 제3국에 수출(51.4%)할 예정이며, 37.8%는 한국반입을 계획하고 있다.

2003 전자산업, 고부가 품목 수출 상승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통한 '대한민국' 브랜드의 급속한 이미지 제고와 미개척 해외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세가 전자산업 전반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기에 7%대에 달하는 중국경제의 고성장도 수출확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수출은 TFT LCD, 휴대폰,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부품, 컬러TV, 음극선관 등 정보통신, 가전 및 전자부품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16.4% 증가한 5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연말에는 전년대비 19.2% 증가한 6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은 올해 경기회복세에 이어 내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견조한 성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자산업진홍회에서 실시한 설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응답업체 중 48.5%가생산이 다소 호전될 것이며, 17.2%는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답했다. 성장요인으로는 48.7%가 수출증가를 40.9%가 내수증가를 각각 들었다.

해외뉴스

[유럽] 정보사회기술 연구 입찰 권유

유럽위원회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는 '정보사회기술연구'에 들어가는 예산 36억유로의 일부분을 조달하기 위해하이테크 업체들에게 이 연구 프로젝트의 입찰을 권유했다. 이번 연구는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마이크로, 나노 및 광전자공학, 마이크로시스템, 지식기술, 디지털콘텐츠 등 매우 광범위한 IT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술분야 대변인 페르 하우가드는 "이번 예산은 175억유로가 투입되는 대형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라며 "특히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국의 5대 변화

중국 경제가 5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법률환경의 개선이다. WTO 가입 준비과정에서 2700여 건의 경제관련 법령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도 이같은 작업을 가속해 사업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는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율 인하로 단기적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 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질렀다.

셋째는 자체 조달확대다. 올 1~9월 중국의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17.2% 증가한 반면 중국의 자국산 제품수입은 6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넷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급증이다.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올해 1일 평균 1억 5000만달러씩 늘어 10월 말까지 누계가 4416억달러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공급과잉 심화다. 지난해 하반기 82.9%였던 주요 상품 공급과잉률이 올 상반기 86.3%, 하반기 88.0%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 'BT육성 계획' 추진

일본정부가 2010년까지 암 치료율 20% 향상, 맞춤의료 실현, 쓰레기연료 실용화 등을 목표로 바이오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BT전략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010년 바이오산업을 25조엔 규모로 성장시키는 한편, 생명·식량·생활 3대분야에서 바이오혁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육성계획을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BT산업이 인간생활에 변혁을 가져오고 BT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며 계획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